

융복합 분야로서 조경 이론 연구와 글쓰기

이명준* · 배정환**

*기술사사무소 이수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들어가며

융복합 학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융복합”라는 형용사가 학문을 수식하고 있다. 이전에 “다학제적”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전문 분야가 단순히 함께 연구하는 것을 넘어 “융복합”된 새로운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사실, 다학제적 혹은 융복합 학문이라는 말은 적어도 조경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설명이 아니다. 조경가는 늘 자신의 분야를 종합과학예술학문이라고 불리왔고, 한국조경현장에서도 조경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 ·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 · 설계 · 조성 ·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한국조경학회, 2013)”라고 정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융복합 학문으로서 조경을 말할 때 조경 이론과 역사 등 인문적 지식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조경은 여러 테크놀로지와 융복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과 역사는 적극적 파트너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학문도 시대의 산물이기, 그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변할 필요가 있다. 조경이 실천적 학문이라면 융복합 시대의 조경 실천을 뒷받침할 이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II. 융복합 분야로서 조경

잘 알려져 있듯 조경은 전문 분야로서 태동할 때부터 여러 학문 분과의 지식이 필요한 다학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이명준 외, 2015; Disponzio, 2007; Waldheim, 2014). 프레더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19세기 중후반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전문업을 조원(landscape gardening)도 건축도 아닌 ‘조림 실용 예술(sylvan useful art)’이라고 생각했다. 즉, 조경을 과학적인 실용성과 예술적인 상상력이 결합한 분야로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1900년 하버드의 로렌스 과학대학(Harvard's Lawrence Scientific School)에 설립된 최초의 조경 교육 프로그램에는 설계, 원예, 식물, 미술, 건축, 도시 계획, 도로 설계, 공학, 고급수학,

지질, 지리, 삼각법, 농예화학, 기상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Disponzio, 2007).

하지만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의 관찰대로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생태 계획이 조경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조경은 ‘환경적 혹은 생태적 조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양 극단으로 분리되어 왔다(Meyer, 2000). 그 간극을 메우려는 조경 설계가와 이론가의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분리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융복합 학문의 시대에 조경은 과학과 예술을 융복합한 성과물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III. 조경 이론 연구와 글쓰기

조경 이론가 사이먼 스와필드(Simon Swaffield)는 조경 이론을 크게 도구적, 해석적, 비평적 범주로 분류한다(Swaffield, 2002). 도구적 이론은 지식을 일반화하고 체계화하고, 해석적 이론은 어떠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비평적 이론은 관습적인 생각에 저항하고 도전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즉, 광범위하게 보면 조경의 과학적 분석, 설계 이론, 역사와 비평 등이 조경 이론에 포함된다. 여기서는 대체로 조경 이론이라고 여겨지는 설계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1. 설계 이론: 이론은 이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경에는 비단 예술(혹은 설계)과 과학 사이의 간극뿐 아니라, 설계와 설계 이론의 간극도 존재한다. 특히, 설계 실무는 설계가가 담당하고, 설계에 대한 글쓰기는 이론가나 비평가의 임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계에 관한 말하기는 이론가나 비평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설계가, 이론가, 역사가, 과학자든 상관없이 다양한 관점으로 누구든 설계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미 모든 분야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개인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말하기의 주체가 확장되었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이 설계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조경 설계와 이론 모두를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설계가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의 대중적 인식이 제고

될 것이다. 또한, 설계에 관한 비평적 시각, 시각화 테크놀로지 등의 새로운 접근, 리서치 기반의 연구가 활발해져 학술 논문으로 적극적으로 출판될 필요가 있다. 설계에 관한 연구는 전문 학문 분야로서 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역사: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

어느 학문 분야이건 역사 연구는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지만,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가 1970년대에 태동했기에 그 이전 시기에는 조경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 도시사와 건축사와 겹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조경 분야의 역사 연구는 몇 가지 고착화된 전제로 해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임한술, 2017). 먼저, 조경사는 사료 발굴을 통해 역사를 소개하고 구축하는 연구도 필요하고, 이와 함께 이미 발굴된 사료를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같은 사료라 할지라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도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근래 국내외 고고학을 비롯한 역사 분야에서는 GIS를 포함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과거를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복원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과 근현대 조경 공간의 여러 국면을 모델링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조경의 대상인 경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그에 관한 기록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명준 외, 2018).

3. 해외 논문 출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라

설계 이론과 역사를 포함하는 조경 이론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조경 이론과 역사 분야 연구에 전념하기란 쉽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경학은 이공계에 속하고, 때문에 연구자들이 인문학적 연구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해외 학술지에 출판하고자 할 때 조경 이론과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경과 인접하거나 관련된 분야의 적절한 학술지를 살펴보고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 글쓰기의 어려움도 있다. 특히 예술과 인문학 관련 글쓰기는 과학 분야와는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구성 요소의 생략 없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두괄식 문단을 선호한다. 영미권 학자들처럼 글을 유려하게 쓰기 어렵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연구의 내용과 질이다.

적절한 단어 선택과 문장 구사력도 중요하지만, 문장과 문단의 구성과 배열을 통해 연구자의 생각의 구조와 흐름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IV. 맺음말

BK21 플러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학술발표대회와 논문 출판 과정¹⁾에서 얻게 된 교훈은 조경 연구자로서 해외에 한국 조경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양 학자들은 중국과 일본 정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한국 정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한국 정원이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융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관점이나 방법론은 어떠한 현상을 새롭게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생각의 도구(tool)일 뿐, 절대적인 사고의 틀이 될 수 없다. 학문의 역사는 부단히 부정되면서 발전해 왔다.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여 시너지를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학제적 연구가 진정한 융복합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전문성이 한 데 어우러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겠다.

주 1. BK21 플러스 그린인프라 창조인재양성팀의 지원을 받은 연구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Myeong-Jun Lee and Jeong-Hann Pae. Nature as spectacle: Photographic representations of nature in early twentieth-century Korea. *History of Photography* 39(4): 390-404; Myeong-Jun Lee and Jeong-Hann Pae. Photo-fake conditions of digital landscape representation. *Visual Communication* 17(1): 3-23.

참고문헌

1. 이명준, 김정화, 서영애(2018)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9-32.
2. 이명준, 우성백, 이형관, 배정환(2015) 어바니즘으로서 조경의 기원.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3-35.
3. 임한술(2017) 한국 조경사 서술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3-98.
4. 한국조경학회(2013) 한국조경현장.
5. Disponzio, J.(2007) History of the profession. In L. J. Hopper ed., *Landscape Architecture Graphic Standards*.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5-9.
6. Meyer, E. K.(2000).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M. Conan ed.,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7. Swaffield, S. ed. (2002). *Theory in Landscape Architecture: A Read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8. Waldheim, C.(2014).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4(3): 187-191.